

G7, 중국 신장·홍콩·대만 문제 '직격'

남중국해·불공정 무역도 지적 폐막 성명 중국 정면비판 처음 일대일로 대응 인프라 펀드 구축

주요 7개국(G7)이 정상회의 성명에서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과 신장(新疆) 자치구 주민 강제노역, 대만과의 갈등 등을 거론하며 대중국 공세를 강화했다. G7 정상회의가 폐막 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막을 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코뮌iqué)에서 중국에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다.

성명은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

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7 정상은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G7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프로젝트가 '일대일로'보다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G7 성명에는 코로나19 기원 재조사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

다. G7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포함해 다양한 가설을 논의했다.

다만 G7 정상들의 대중국 대응에 대한 개별적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대중 강경 기조를 주도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대응에 우려를 표명하며 "더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회원국들과 중국이 강제노동이나 인권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면서도 "G7은 중국에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 중국은 (국제무역) 규칙을 충실히 따라주었으면 하는 경제분야의 라이벌"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G7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영국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웹사이트에서 "작은 그룹의 국가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라며 "작은 집단이나 정치 불투명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 이비 다자주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도심에서 13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군경의 유희 진압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대한 저항 시위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시민들 '로힝야 구애' 연대 시위

검정 옷 입고 "같이 군부 몰아내자"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의 탄압을 받은 이슬람계 소수 민족 로힝야족에게 "같이 군부를 몰아내자"며 구애하는 연대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14일 트위터 등 SNS와 AFP통신에 따르면 일요일인 전날 검은색 옷을 입고 로힝야족에게 연대를 표하는 캠페인이 미얀마 전역에서 벌어졌다. SNS에는 '블랙 포 로힝야' (#Black4Rohingya)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은종일 넘쳐났다. 시민들은 검정 옷을 입고,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 양곤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시민들이 "억압받는 로힝야족을 위해 항의한다"는 팻말을 들었다.

로힝야족과 이들을 위한 인권단체들은 감격스

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불교 신자가 인구의 88%를 차지하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라는 명칭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한 로힝야족 인권운동가는 "연례적으로 로힝야족에 연대를 보이는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미얀마에서 다 같이 동참하고 화제가 되는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 시민들이 로힝야족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며 "이들이 서로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돼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로힝야족 70여만 명은 2017년 8월 말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미얀마군에 쫓겨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현지 난민촌에 모여 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 수천 명을 살해했다. /연합뉴스



"나토 정상들은 오직 평화를 위해 싸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도심에서 반전 주의자들이 '오직 평화를 위해 싸우라'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다음날 이곳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새 연정... 네타냐후 12년 집권 마감

베네트 총리 "이란 핵보유 용납 못해"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71)의 장기 집권이 아련 정당들의 협공에 1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13일(현지시간) 특별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야권 정당들이 참여하는 새 연립정부를 승인했다. 이날 신임투표에서 120명의 의원 가운데 60명이 연정을 지지했고, 5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연정에 동참한 아랍계 정당 라ამ에서 1명의 의원이 지지를 철회했지만,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해 새 연정 승인이 가능했다. 이로써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드를 중심으로 좌파와 우파, 아랍계 등 8개 야권 정당이 동참하는 '무지개 연정'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차기 정부 임기 전반기인 2023년 8월까지 총리는 극우 정당인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49) 대표가 맡는다.

베네트는 신임투표에 앞서 한 연설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을 겨냥해서는 "이란과의 핵 합의



새 연립정부가 승인을 받은 후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가 검지를 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

복원은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연정 구성과 함께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의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09년 3월 31일 이후 지금까지 12년 2개월여간 집권한 네타냐후는 야당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 네타냐후는 새 연정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때론 우방인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푸켓 2주 머물러야 타지역 이동 가능?... 외국인 절반 입국 취소

태국 정부 기존 7일서 두배 연장

7월1일부터 재개방되는 태국 푸켓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면서 다수 외국인이 이 방안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온라인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피파트 라치킵쁘라칸 관광부장은 무격리 입국이 가능한 '푸켓 관광 샌드박스' 모델을 이용해 7월 중 푸켓을 방문하려던 외국인 2만9700명 중 절반 이상이 입국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푸켓행을 취소한

이유는 태국 경제상황관리센터(CESA)가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기 전 푸켓에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두 배로 연장했기 때문이었다고 피파트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14일 의무 체류"를 한 달간 시행해 본 뒤 코로나19 확진 상황 및 지역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 달 동안 추가 확진 사례가 없다면, 푸켓의 무 체류 기간을 기존의 7일로 환원하고, 이후 다른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푸켓 관광 샌드박스'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적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태국 정부의 재개방 프로젝트 중 하나다. 자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은 푸켓으로 직접 입국한 뒤에는 격리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태국 정부는 내달 1일까지 푸켓 주민의 70%가량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태국 정부는 '푸켓 관광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3분기에 최소 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푸켓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체결 후보국 중 하나다. /연합뉴스



MG금남새마을금고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